




## 2월 첫째 주 기사 스크랩

[주요 뉴스]

 박주용 IBK인도네시아은행 법인장 "인니 최고의 중소기업 전문은행 만들 것"  
(p. 1-2)

 '인도네시아의 정주영' 다르모노 "한국 기업 진출 적극 지원" (p. 3-5)

 아모레퍼시픽, 인도네시아 유통사 MAP과 비즈니스 파트너십 체결 (p. 6)

 "교황, 9월 세계 최대 이슬람국가 인도네시아 등 방문" (p. 7)

## 박주용 IBK인도네시아은행 법인장 "인니 최고의 중소기업 전문은행 만들 것"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28 17:23 수정 : 2020.01.28 17:23

### 6.IBK인도네시아은행



【 자카르타(인도네시아)=윤지영 기자】"인도네시아 최고의 '중소기업(SME) 전문은행'으로 만들겠습니다."

박주용 IBK인도네시아은행 법인장(사진)은 인터뷰 내내 중소기업 지원에 특화된 기업은행의 강점이 인도네시아에서도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지난해 9월 공식출범한 IBK인도네시아은행은 출범 6개월 차에 접어든 새내기 외국계 은행으로, 차별성을 높이기 위해 치열한 고민을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아그리스(Agris)·미트라니아가(Mitraniaga)은행을 인수할 당시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국외전산 통합시스템(계좌정보, 고객정보, 인터넷뱅킹 등을 표준화한 통합 전산 시스템)도 지난해 연말 오픈해 새 사업 기반을 구축하는데 성공했다.

IBK인도네시아은행은 단기·중기·장기로 계획을 세분화해 현지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당장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는 'SME 전문은행 기반 확충'에 방점을 둘 예정이다. 박 법인장은 "한국에선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지만 인니에선 대기업으로 나뉠 정도로 기업 분류 기준이 국내와 다르다"면서 "당분간은 인위적으로 중소기업·대기업을 나눠 생각하기 보다는, 보다 폭넓은 고객 확보를 위해 현지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업금융에 집중하면서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특화 지원 전략을 펼칠지 고민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현재 인니에 있는 30개의 영업점을 '기업금융 특화 점포'로 탈바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 법인장은 "기업고객 확보차원에서 산업단지가 조성된 땅그랑과 찌까랑에 각각 1곳씩 우선적으로 점포를 냈다. 현지인은 물론 인니에 진출한 한인기업도 모여 있어 기업금융 주요 거점 점포로 활용할 생각"이라며 "다른 지역에 있는 (현지인) 지점장들과도 IBK인도네시아 은행이 기업금융 전문은행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현지화 전략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기업 전문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IBK인도네시아은행이 추진중인 현지화 전략 중 하나다. 장기거래 고객 확보 차원에서 기업 특화 여신 상품을 출시하거나 경영 전반에 필요한 컨설팅까지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미 국내에선 중소기업 디지털 경영지원 플랫폼인 '박스(BOX)'를 운영 중이다.

박 법인장은 "인니 현지은행의 대출상품 금리는 9% 수준인데, 우선적으로 인니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이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이어 "현지 인니기업은행은 국내처럼 신용평가 기준 등이 잘 마련돼 있지 않아 기업대출을 진행할때 어려움이 있다. 기업 재무재표 외에도 역량 등을 평가해 인니 금융환경에 맞는 기업대출 평가 모듈도 만들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IBK인니 창공'을 운영하는 등 인니 현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집중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 ‘인도네시아의 정주영’ 다르모노 “한국 기업 진출 적극 지원”

입력 2020.01.30 18:00수정 2020.01.30 18:32



[HL2\_7422] [저작권 한국일보] 세트요노 주안디 다르모노 자바베카 회장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호텔에서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2020-01-29(한국일보)

맨손에서 거대 기업을 일궈냈다는 점에서 한국 재계의 정주영 혹은 이병철과도 비견되는 인도네시아의 거물 사업가가 직접 우리 나라를 찾아 한국 기업가들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촉구했다.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도 오랜 친분 관계를 유지할 정도로 현지 정·재계에 두터운 인맥을 구축한 그는 한국일보 후원 아래 최근 발족한 양국 경제단체의 인도네시아 측 대표직을 기꺼이 수락하며 한국 기업의 대 인도네시아 진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지 최대 부동산개발업체인 자바베카(Jababeka) 그룹의 세트요노 주안디 다르모노 회장은 30일 열린 'KIMA 한·인도네시아 포럼'에서 "성장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한국 기업가들에게 인도네시아는 성공의 꿈을 이루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르모노 회장은 전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중소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통해 인도네시아 투자를 추진하는 한국 재벌그룹과의 협력을 적극 모색 중"이라며 "두 나라 사이의 민간 경제협력을 위해 발족한 한·인니경영학회(KIMA)를 통해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에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다르모노 회장과의 일문일답 및 30일 포럼 논의 내용.  
\_조코위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를 설명해달라.

"조코위 대통령과의 인연은 그가 자카르타 주지사이던 시절(2012년)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조코위 시장은 과거 동아시아의 보석으로 불릴 정도로 아름다웠던 자카르타를 재건하는 프로젝트를 나에게 맡겼다. 450년 전통이 서린 400ha 면적의 오랜 도시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처럼 아름답게 재건하는 계획이었다. 최근에는 수도 자카르타로 경제력과 인구가 집중되는 걸 막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으로 인도네시아 전역에 100개 사업단지를 건설하는 방안을 조코위 대통령에게 제안하기도 했다."

\_고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자와 비견되는) 경영철학을 소개해달라.

"나의 경영철학은 '항해하며 배를 만들라'(Building a ship while sailing)이다. 또 '그림자를 쫓지 말고 태양을 쫓아라. 그러면 그림자가 너를 따를 것이다'이다. 즉 돈을 쫓는 것이 아니라 꿈을 키우고 좋은 일을 하면 돈이 저절로 쫓아온다는 게 내 신념이다." 다르모노 회장의 이런 경영철학에 대해 김기찬 가톨릭대 교수는 "500원 지폐를 담보로 거대 조선소를 건설한 정주영 창업자나 '사업보국' 등 애국심을 강조한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자의 철학과 유사

하다”고 평가했다.



[HL1\_6673] [저작권 한국일보] 세트요노 주안디 다르모노 자바베카 그룹 회장이 30일 오전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제1회 KIMA 한·인도네시아 포럼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2020-01-30(한국일보)

\_자바베카 그룹과 협력 중인 한국 기업이 있나?

“자바베카 그룹은 1989년 인도네시아에 자립형 산업단지를 건설해야 한다는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설립됐다. 이후 다수의 프로젝트 성공으로 1994년 자카르타 증시에 상장됐고 2016년 현재 총자산은 10조733억루피아(8.8억달러)이다. 한국 중소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 재벌기업과 공동으로 첨단 공업단지를 만들고 싶다. 한국 시장에서는 한국 기업보다 잘할 자신이 없어서 투자할 계획이 아직은 없다(웃음).”

\_인도네시아 진출을 망설이는 한국 기업들에 조언을 해달라.

“인도네시아에는 성공을 갈망하는 젊은 인재가 많다. 그들과 함께하면 성공의 꿈을 꿀 수 있다. 인도네시아 현지의 투자정보와 주요 인맥에 대한 접근은 최근 발족한 KIMA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 KIMA의 인도네시아측 의장직을 기꺼이 수락한 것도 그 때문이다.”

\_한국 기업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할 때 유의할 점이 있다면?

“계층간 상생을 강조하는 인도네시아 건국 원칙인 ‘판차실라’를 잊으면 안 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승자가 모든 걸 독점하지 않는다. 최근 재선에 성공한 조코위 대통령이 대선 경쟁자였던 프라보워 수비안토를 국방장관에 임명한 게 대표적이다.”



한·인도네시아포럼 참석자들이 30일 함께 모여 양국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다짐하는 손짓을 하며 사진을 찍고 있다. 이한호기자

한편 다르모노 회장의 특별강연을 중심으로 30일 오전 진행된 '한·인도네시아 포럼'에는 우마 하디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 신남방정책추진단 안병화 국장, 서정인 전 아세안대사, KIMA의 한국측 의장인 김기찬 교수 등이 참석했다. 우마 하디 대사와 안 국장 등 참석자들은 양국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KIMA가 주관하는 행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인도네시아 포럼에서 안병화 국장이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인도네시아와의 경제협력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한호기자

윤태석기자 [sportic@hankookilbo.com](mailto:sportic@hankookilbo.com)

## 아모레퍼시픽, 인도네시아 유통사 MAP과 비즈니스 파트너십 체결

황양택 기자 기사승인 2020-02-03 10:45:58 최종수정 2020.02.03 10:45



배동현 아모레퍼시픽그룹 대표이사(사진 오른쪽)와 샤르마 MAP 그룹 CEO [사진=아모레퍼시픽 제공]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인도네시아 현지 최대 유통 회사 MAP(PT Mitra Adiperkasa Tbk) 그룹과 비즈니스 파트너십(Business Partnership)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MAP 그룹 본사에서 배동현 아모레퍼시픽그룹 대표이사와 샤르마(V.P. Sharma) MAP 그룹 CEO가 참가한 파트너십 체결식이 열렸다.

MAP 그룹은 SOGO, 갤러리 라파예트, 세포라 등 글로벌 유통 채널과 스타벅스, 자라 등 글로벌 브랜드 현지 운영권을 보유한 인도네시아 대형 유통 회사로, 인도네시아 70여 개 도시에서 약 2300여 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아모레퍼시픽그룹은 MAP 그룹이 운영하는 유통망에서 설화수, 라네즈, 이니스프리, 에뛰드하우스의 제품을 선보인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현재 글로벌 시장 특히 중국과 아세안을 포함하는 아시아-태평양 시장의 성과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추진 중이다.

시장조사업체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 시장 중 인도네시아는 현재 세계 4위의 인구 규모에 2018년 화장품 시장 규모 약 6조 4,800억원, 2023년 약 11조 4,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 거대 시장이다.

배동현 아모레퍼시픽그룹 대표이사는 협약식을 통해 "성장 잠재력이 큰 인도네시아의 최대 유통사인 MAP사와 파트너십을 맺게 돼 앞으로 기대가 크다"며 "MAP사의 유통 전문성과 아모레퍼시픽의 글로벌 브랜드가 시너지를 내서 앞으로 인도네시아 고객들에게 최고의 제품과 최적의 서비스를 선보이겠다"라고 말했다.

샤르마(V.P. Sharma) MAP 그룹 CEO는 "글로벌 뷰티 기업 아모레퍼시픽그룹과의 파트너십 덕분에 자사가 유통하는 프리미엄 글로벌 브랜드의 포트폴리오가 더욱 강화됐다"라며 "현대적 아름다움과 웰빙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고 있는 인도네시아 고객들에게 아모레퍼시픽그룹의 혁신 제품을 소개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했다.

한편 아모레퍼시픽은 2013년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 설립 후 매년 고성장을 이어오고 있다. 인도네시아 시장에 설화수, 라네즈, 이니스프리, 마몽드 브랜드를 론칭했으며,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에뛰드하우스 브랜드를 공식적으로 새로 선보이게 됐다.

아모레퍼시픽은 이번 MAP과의 파트너십 계약을 통해 앞으로도 현지 시장에서의 뷰티 리더십을 더욱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072vs09@naver.com

## "교황, 9월 세계 최대 이슬람국가 인도네시아 등 방문"

송고시간 | 2020-02-04 00:29

로이터 통신 보도...종교간 대화·화해 기조 이어갈듯



프란치스코 교황. [EPA=연합뉴스]

(로마=연합뉴스) 전성훈 특파원 = 작년 일본·태국 등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올해도 아시아 국가를 순방할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은 교황이 올해 9월 인도네시아와 동티모르, 파푸아뉴기니 등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라고 바티칸 소식통을 인용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2013년 즉위 이래 지속해서 추진해온 종교 간 대화와 화해 기조를 이어가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인구 규모 기준으로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가톨릭 국가인 동티모르, 개신교가 다수인 파푸아뉴기니와 각각 국경을 맞대고 있다.

동티모르는 2002년 인도네시아에서 독립한 신생국으로 인구의 97% 이상이 가톨릭 신자다. 전통 가톨릭 국가인 포르투갈의 식민 지배를 받은 영향이 크다.

파푸아뉴기니도 인구의 70%는 개신교, 26%는 가톨릭을 믿는 기독교 국가다. 세 나라 순방이 성사된다면 프란치스코 교황 즉위 이후 첫 방문이 된다. 교황청은 조만간 교황의 순방 계획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요한 바오로 2세가 1984년 파푸아뉴기니를 찾은 데 이어 1989년엔 동티모르와 인도네시아를 각각 방문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올해 불안정한 중동 정세 속에 반정부 시위로 혼란을 겪는 이라크도 방문하고 싶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으나 실제 순방 일정이 잡힐 지는 미지수다.

lucho@yna.co.kr